

향기 나는 인생

고린도후서 2:14-17

인간사회와 같이 동물세계에도 그 세계를 움직이는 나름대로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약육강식의 법칙”입니다. 말 그대로 약한 동물은 강한 동물의 먹이가 된다는 원리입니다. 강한 동물, 즉 육식동물은 자신만의 고유한 영역을 표시함으로써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자나 표범, 살쥬이와 같은 동물은 자신의 영역에 배설물로 자신만의 독특한 냄새로서 영역표시를 합니다. 이러한 독특한 냄새는 경쟁자인 다른 육식동물이 자신의 영역에 들어왔을 때, 일종의 경고 역할을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들이 자신만의 영역을 표시하는 고유한 냄새를 풍기듯이 사람들도 자신만의 독특한 냄새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일차적으로는 몸에서 나는 냄새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몸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이나 행동, 말 등에 묻어나는 냄새입니다. “웬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는 뭔가 냄새가 나!”라는 표현은 그 사람의 인격이나 행동, 혹은 말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가정이나 직장, 학교나 사회에서 자신의 인격이나 행동, 말 등을 통해서 자신만의 고유한 영혼과 믿음의 냄새를 알게 모르게 드러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인격과 행동, 그리고 말에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요새는 ‘감성공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지성보다는 감성이 중요하다는 주장들이 나타났습니다. IQ의 시대를 지나 EQ의 시대가 된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제는 IQ(지능지수) 보다는 EQ(감성지수)가 높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성지수를 움직이는 것이 빛, 소리, 진동, 그리고 냄새 이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신경과 뇌파에 작용을 하고 심장 맥박을 좌우하면서 감성을 움직인다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냄새에 대해 연구해 보니까 좋은 냄새는 방부제적 역할을 하고 살균 효과가 있고 피부 세포를 재생한다고 합니다. 좋은 냄새를 맡으면 피부색이 좋아지고 성장을 촉진 하고 통증을 제거하기도 하고 면역기능을 높여주고 정신과 신체를 조절해 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냄새가 감정을 조절하게도 하고 기억력도 인지능력도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냄새를 인식하는 코가 뇌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냄새가 즉각 뇌에 전달이 되면서 바로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냄새가 주는 효과, 그건 육체에는 말할 것도 없고 기분을 좋게 하고 나쁘게 하고, 용기가 생기게도 하고 사라지게도 하고, 소망이 차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정신 상태가 맑아지기도 하고 흐려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선해지기도 하고 악해지기도 한다는 이것이 바로 ‘감성공학’이 주는 결론입니다. 어쨌거나 이 냄새라는 것이 우리 일상에 상당히 널리 퍼져 있으면서 아주 보이지 않게 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냄새는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거짓말을 할 수 있어도 냄새로는 속일수가 없는 것입니다. 냄새는 남는 것이요, 배어드는 것이요, 축적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문제는 인간의 냄새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냄새가 어떤 것이냐 하는 문제란 말입니다. 사랑은 향기입니다. 그러나 증오는 악취입니다. 용서는 향기입니다. 그러나 미움은 악취입니다. 이해하는 것은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오해하며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에는 언제나 역한 냄새만 날뿐입니다.

오늘 성경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필이면 향기라고 하는지 그 역사적 배경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전쟁에서 로마의 장군들이 승리를 거두고 사로잡은 포로들을 결박하여 돌아와서는 신전에 가서 희생제물을 바치고 향불을 피웠는데 그 향내가 온 거리를 진동했다고 합니다. 즉 이때의 향기란 승리의 상징이요 승리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향은 기뻐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승리한 군인들은 기뻐하는 향을 풍기고 이들을 맞이하는 백성들에게는 환영의 향기입니다. 그래서 이 향내를 맡으면서 생기가 솟아오릅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생명이 이릅니다. 기운이 없던 사람도 기운을 내고, 정말 앓아누웠던 사람도 이 향기를 맡으면서 병이 낫는 겁니다. 그런 생명적인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가하면 반면에 전쟁에 패배하고 끌려오는 그 포로들에게는 그 향내가 곧 죽음에 이르는 냄새가 됩니다. 이 냄새가 그렇게 싫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맡기 싫고 맡기 두려운 그런 냄새입니다. 전쟁에 패한 굴욕감뿐만 아니라 냄새가 짙어오면 올수록 죽음이 가까워 오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성경말씀 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이 이르는 냄새요 어떤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냄새라 하는 문자 그대로가 사실입니다. 지금 바울은 복음전도에 이 냄새를 비유합니다. 복음이라는 그 자체는 놀라운 은혜요, 구원이요, 축복이어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지만 그것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냄새가 되어 심판의 근거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앓은뱅이를 일으키고 문둥병자를 깨끗케 하고 열병을 고치고... 모든 병자를 다 고치고 특별히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심지어는 장례식 하는 걸 보고 따라가서 죽은 자를 일으키시기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농담을 하지요. ‘예수님은 뭐든지 다 해 보셨겠지만 장례식은 아마 못 해 보셨을 거’라고. 이렇듯 예수님을 통해 영적으로 육적으로 사회적으로 밝은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을 듣자마자 자기의 권좌를 내 놓아야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당장 아기예수를 죽이려고 계책을 꾸몄습니다. 그런가하면 바리새교인, 서기관, 제사장, 이 사람들 모두 자기들이 가졌던 기득권, 지식, 명예를 다 잃을까 싶어서 노심초사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이곳 저 곳에서 풍기는 냄새는 아주 역겨운 것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냄새가 역겨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말입니다. 깊이 생각할 문제입니다. 그런가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이해했는지, 그 교훈을 바로 깨달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삼년 동안 동행을 하면서 이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글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얼마나 용기 있고 지혜롭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지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전할 때에 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앓은뱅이가 일어나고, 문둥이가 깨끗해지고... 실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3,000 명이 모여서 회개하는 굉장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어디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저들이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삼년 동안 함께 하더니 예수님의 냄새가 났습니다. 예수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의 향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요. 향수 공장에 들어갔다 나오면 몸에 향수 냄새가 배고 가죽 공장에 들어갔다 나오면 몸에 가죽 냄새가 났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향수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은 늘 그 향수 냄새를 맡기 때문에 자기에게 향수 냄새가 나는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가죽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은 늘 그 가죽 냄새를 맡기 때문에 자기에게 가죽 냄새가 나는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죽 공장에 처음 들어간 어떤 사람이 지독한 가죽냄새 때문에 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려고 하면 안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난리입니다. 왜, 아무 냄새도 나지 않는데 문 열고 난리라고 말이죠. 내가 어디에 갔었는지, 누구와 함께 했는지, 무엇과 주로 생활했는지는 그 냄새가 말해 줍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오래 함께 하면서 주님을 사랑했고 정말 주님의 인격을 배웠다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하지만 교회는 늘 다녔지만 예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사람과 함께 했으면 거기서는 악취만 물어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수 십 년 했다고 자랑하지만 그 풍기는 냄새가 신앙의 실패자들이나 낼 수 있는 썩은 인간의 욕심이나 거짓말, 비방, 질투, 시기 등의 악취 나는 인생을 산다면 그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냄새를 풍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겼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승리한 자의 향기, 생명의 향기를 풍겼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누구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또한 나와 함께 하는 주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들과 사귀는 내 주변에는 어떤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서 신앙의 향기가 납니까? 또한 나는 그들에게 생명에 이르는 향기를 주는 자입니까? 죽음에 이르는 냄새를 주는 자입니까?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거기에 길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인격과 성품이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죽음에 이르는 냄새로 살지 말고 생명의 향기가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